이슈분석

Ⅰ. 3/4분기 소비실적을 통해 본 미국경제 전망 2
Ⅱ. WTI-Dubai油價 역전 현상에 대한 논의 6
Ⅲ. 세계경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나 8

경제동향

Ⅰ. 해외경제 10
Ⅱ. 국내경제 11
Ⅲ. 중소기업 12
Ⅳ. 금융시장 14
Ⅴ. 자금흐름 15

CEO 라운지

Ⅰ. IBK 녹색성장지원단 16
Ⅱ. 중소기업 컨설팅 사례 19
Ⅲ. 부동산 시장동향 및 이슈 20

경제지표

경제지표 22

Ⅰ. 3/4분기 소비실적을 통해 본 미국경제 전망

3/4분기 미국경제가 크게 호전

■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마감되며 3/4분기 GDP가 전분기대비 연율 3.5% 성장

○ GDP의 70%를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미국경제가 반등

· 3/4분기 미국경제 투입요소별 경제성장 기여도

: 민간소비(2.4%p), 설비투자(-0.2%p), 건설투자(0.5%p), 재고증감(0.9%p), 순수출(-0.5%p), 정부지출(0.5%p)

■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 중

○ 투자은행의 대표격인 골드만삭스는 '09.3월 시가총액이 '07.6월말 가치의 35%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'09.11월 90%까지 회복

○ Ford 자동차는 GM 구조조정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'07.6월말보다 가치가 1.5배 상승

정책지원 효과로 내구재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

■ 3/4분기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회복(3.4% 증가, 전분기대비 연율기준)된 것은 대부분 내구재 소비가 22.4%나 증가한데 기인

○ 민간소비는 서비스(65%), 비내구재(23%), 내구재(12%) 지출로 구성되어 있는데

○ 3/4분기 서비스 지출이 전분기대비 연율 1.2%, 비내구재 지출이 2.0% 증가에 그친 반면 내구재 지출은 22.4%가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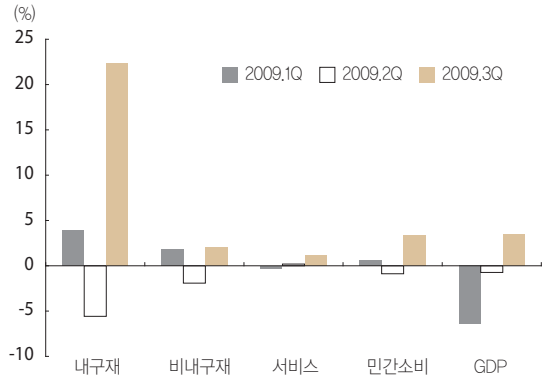
■ 정부의 현금보상프로그램으로 자동차 구입(내구재 소비에서 약 30%를 차지)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3/4분기 미국 경기회복의 주요 원인

○ 미 정부는 7.24일부터 한 달 동안 연비가 좋은 신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에게 최고 4,500달러를 지원하는 미국의 중고차 현금보상프로그램(Cash-for-Clunkers)을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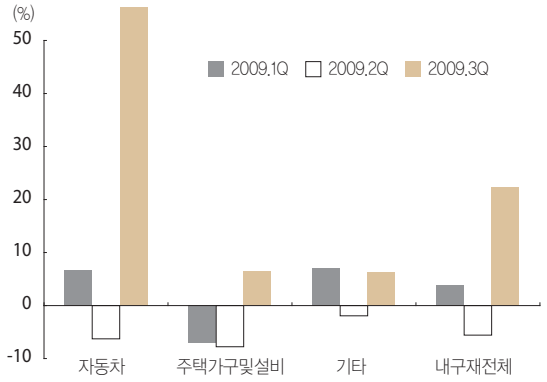
· 동 프로그램의 예산은 10억 달러였지만 높은 호응으로 20억 달러의 추가자금을 투입

○ 이로 인해 3/4분기 자동차 구입이 전분기대비 연율 56.3%나 증가하면서 전체 내구재 소비를 견인

미국 항목별 소비증가율



미국 내구재 항목별 소비증가율



주 : 전분기대비 연율기준 증가율
자료 : Datastream

■ 주택구입에 대한 보조금 혜택으로 주택관련 내구재 소비(전체의 약 25%를 차지)가 증가한 것도 소비진작의 주요 원인 중 하나

❍ 미국 정부는 첫 주택구입자에게 15년 상환조건으로 7,500달러를 융자해 줬는데 '09년에는 8,000달러를 무상보조하면서 혜택을 대폭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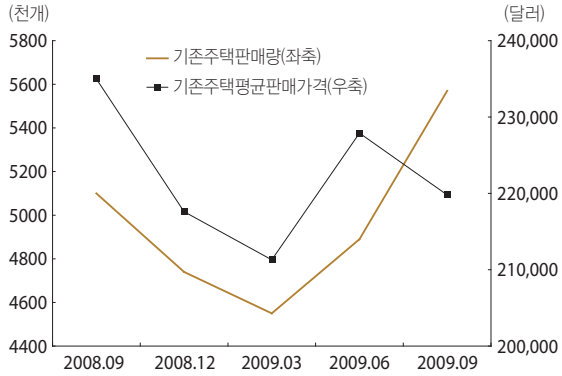
❍ 이로 인해 3/4분기 기존주택판매량이 전분기대비 연율기준 45.6% 증가

❍ 하지만 대부분 차압주택 증가로 저가매수 기회가 확대되면서 발생(전체거래의 약 50%)된 것으로 주택소유 후 관련 내구재 구입 및 교체수요는 전분기대비 연율기준 6.4%로 낮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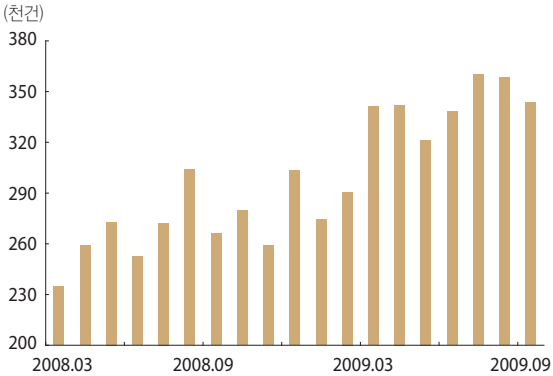
· 3/4분기 주택압류건수는 93만 7,840건으로 전분기대비 3% 증가했는데 이는 136가구 중 한 채 꼴로 주택이 차압되는 상황

· 차압주택거래의 영향으로 9월 기존주택 평균판매가격은 6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

미국 주택거래량 및 거래가격



주택 차압 건수



주 : 전미부동산협회

자료 : Realtytrack

하지만 실업률이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소비회복의 지속성 여부는 불투명

■ 정부가 세제지원 프로그램을 연장 또는 신설하고 있으나 이는 미래수요를 앞당겨 온 것에 불과하며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효과의 지속성은 불투명

❍ 첫 주택매입자 세제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장하여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할 계획

· 연장 프로그램에서는 혜택대상을 종전 연간 개인소득 7만5천 달러, 부부합산소득 15만 달러에서 연간 개인소득 12만5천 달러, 연간 부부합산소득 22만5천 달러로 상향

· 5년 이상 거주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도 첫 주택매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적용

❍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

■ 지금 미국은 5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이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상황

❍ '09.10월 실업률은 10.2%로 '82.12월(10.8%) 이래 최고치로 상승했는데, 구직단념자와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17.5%로 대공황 이후 최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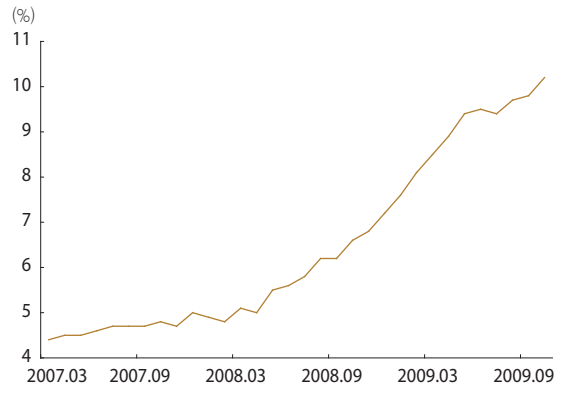
· 10월 평균 실업기간은 사상최대치인 26.9주로 증가

■ 최근 기업실적이 양호해졌지만 고용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가 불가피

❍ 11.8일 3/4분기 실적을 발표한 S&P500기업의 440개 기업 중 70%가 실적이 기대보다 14.9%나 증가했는데 이는 매출증대가 아니라 감원을 통한 비용감소에서 비롯된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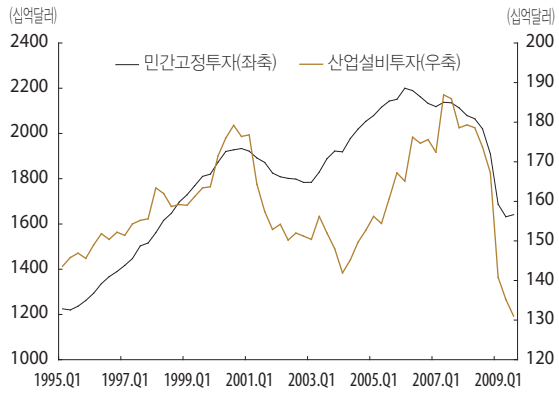
❍ 3/4분기 민간투자가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산업설비투자는 '95년 통계집계이후 사상최저치로 추락했음을 감안할 때, 기업이 확보된 이익을 투자에 활용하고 다시 고용활동을 정상수준으로 재개하는 데에는 상당기간이 소요

실업률 추이



자료 : 미국노동부

민간투자 추이



자료 : Datastream

특히 서비스부문으로의 지출마저 감소할 경우, 미국경제의 부진 장기화 우려

■ 대부분 정책지원이 내구재 소비에 집중되어 있는데, 미국 소비의 핵심은 서비스에 대한 지출(전체 소비의 65%)이며, 다행히 3/4분기까지 서비스 지출은 유지되는 중

■ 하지만 실업률이 예상치를 훨씬 초과하면서 상승함을 감안할 때, 고용불안이 서비스에 대한 지출마저 감소시킬 수 있고, 이 경우 미국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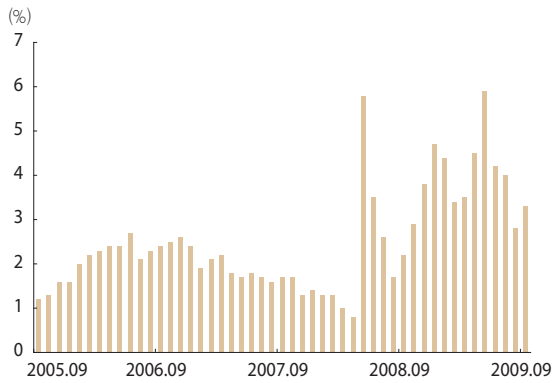
❍ 올해 5월 대형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내년 실업률이 10.3% 이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진행됐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실업률 증가 속도는 우려 수준

· 실업률 증가와 개인파산이 주택경기 위축과 신용경색 등으로 다시 연결될 가능성 존재

❍ 만일 가계가 소비의 구조적인 패턴을 바꾸면서 최종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지출마저 줄이기 시작한다면 소비위축은 정책자금으로도 지탱하기 힘들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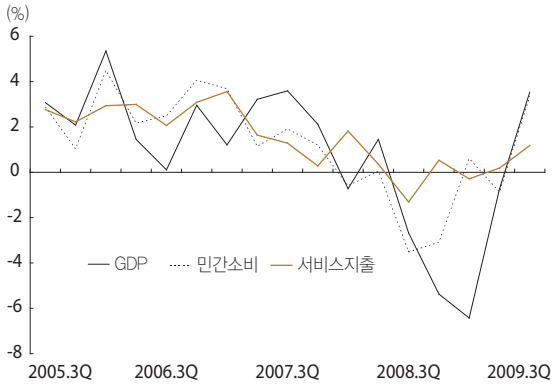
· 올해 5월 저축률이 '95.2월 이래 최고치인 5.9%까지 상승한 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9월 다시 상승한 것도 향후 소비에 부정적 신호

저축률 추이



자료 : Datastream

서비스 지출 증가율 추이



주 : 전분기대비 연율기준 증가율, 자료 : Datastream

내용문의 : 금융경제팀 김영훈 연구위원(02-729-6369)

Ⅱ. WTI-Dubai油價 역전 현상에 대한 논의

WTI油價가 '09년 이후 Dubai油 보다 낮게 형성되는 가격역전 현상이 자주 나타남

■ 최근 국제유가가 세계 경기회복세와 달러 약세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유종(WTI, Dubai)간 가격역전 현상 발생

❍ WTI(서부텍사스산 중질유)가 Dubai(두바이)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는 : ① WTI油는 양질의 원유로 높은 API농도(원유농도)와 낮은 황함유량 보유 ② WTI油는 선물시장의 발달로 인해 투기세력 개입이 용이하기 때문

■ '09년 지표유가 역전 기간은 203일 중 84일로 거래일 수의 41%를 차지하며 주로 1~2월, 4월, 7~8월에 집중

❍ '96년부터 '08년까지 WTI평균가격 40.75달러, 두바이 평균가격 36.63달러로 두 유종간 평균 스프레드(WTI-Dubai)는 4.12달러 정도였으나 '09년 이후는 0.15달러로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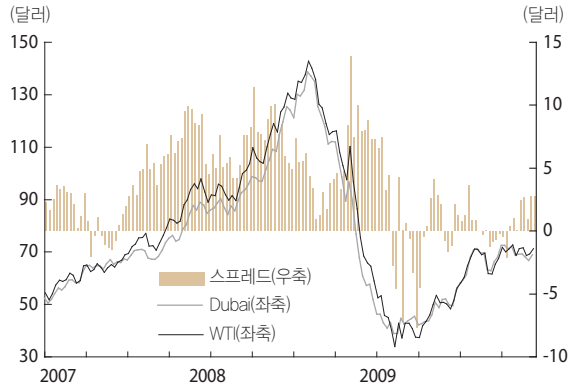
최근 가격역전 현상은 Dubai유 강세요인과 WTI유 약세요인으로 설명 가능

■ 최근 Dubai油 강세요인은 OPEC의 생산감축과 아시아지역의 견조한 수요에 기반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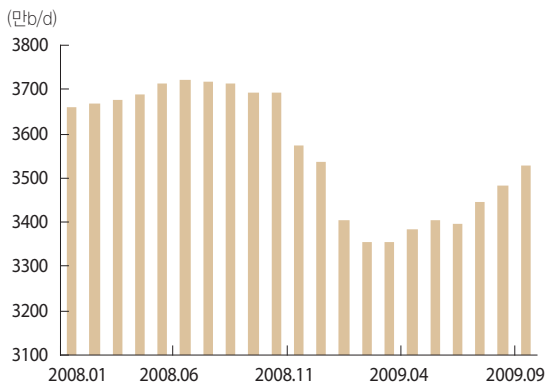
❍ OPEC의 석유 생산량의 상당부분이 중질원유로 감산결정은 Dubai油價 상승요인으로 작용
· OPEC은 '08년 10월 총회에서 150만 b/d, '08년 12월 총회에서는 420만 b/d 감산 결정

❍ 아시아지역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석유수요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고, 원유수입의 상당부분은 중질유인 중동원유에 의존
· 韓 · 中 · 日 · 印度의 '09년 상반기 석유수요 2.3% 감소, OECD 유럽국 4.4% 감소, 미국은 6.3% 감소하였으며, 韓 · 中 · 日의 원유 중동의존도는 약 74%(2008년 기준)

국제유가 추이와 WTI-Dubai 스프레드



OPEC의 월별 생산량



자료 : 석유정보망

WTI油 약세요인은 WTI 재고 증가와 선물시장 발달로 인한 변동폭 확대

❍ WTI의 선물인도 지점인 Oklahoma주 Cushing지역의 재고 증가

· Cushing지역의 재고는 '08.9월 리먼 사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

· 재고(단위, 만b/d) : 1,674('07년 말) → 3,000('08년 말) → 3,392('09.6월 기준)

❍ 북미시장은 선물시장이 발달하여 투기세력의 개입이 용이

· 아시아시장의 경우 선물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원유거래가 장기계약과 현물로 이루어져 국제원유시장의 Fundamental에 크게 좌우

· 반면, 북미시장의 경우 선물이 현물시장을 Lead하며 국제유가의 변동 폭을 확대

WTI-Dubai 스프레드는 '08년 말의 5~7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

북미지역 경기회복 가시화와 함께 WTI선물시장의 Lead로 WTI-Dubai 스프레드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

❍ '10년 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WTI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두 유종간 가격 역전 현상은 다소 완화될 전망

산유국 및 유종별 성상과 생산량

시장	국가	유종	성상		생산량(b/d)
			API(도)	황함량(%)	
북해	영국	Brent	38.3	0.36	0.42백만
북미	미국	WTI	39.6	0.24	0.36백만
아시아	중국	Daqing	10.0	10.0	1.1백만
중동	사우디	Arab Medium	28.1	3.10	0.6~0.8백만
	쿠웨이트	Kuwait	31.1	2.55	2.0~2.1백만
	UAE	Dubai	32.0	1.86	0.15백만

자료 : 대한석유협회

내용문의 : 금융경제팀 이성룡 연구위원(02-729-6709)

Ⅲ. 세계경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나

경제계 주요 인사들의 2010년 세계경제전망(2009 세계지식포럼 발췌)

Nassim Nicholas Taleb(뉴욕대 교수)

❍ 그의 저서 「Black Swan」에서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논리로 현재의 경기부양방식과 향후 회복가능성에 대해 가장 회의적(Pessimistic) 관점을 피력함

· 잘못된 모델로 경제를 분석하는 등 도구 사용의 오류, 세상의 복잡성 가속화 및 변수 간 상호의존성 증폭 등에서 Fat Tail(확률 분포의 양 끝단이 정규분포보다 더 두꺼운 경우로, 대부분의 금융 데이타가 해당), 즉 극심한 값에 대한 취약성이 발생하는데, 현 금융위기 발발도 이와 같습니다.

· 그런데 그 문제(방만한 재정적자와 통화정책으로 인한 버블 형성 등)를 유발한 정책입안자들(ex. 버냉키, 서머스)이 재임용되어 이전과 별 차이 없는 방식으로 현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있어 현재도 1년 전과 같은 위험(Risk)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.

· 따라서 현재의 전망이 틀릴 확률에 대비한 Buffer가 필요합니다. 전망이란 대부분 틀리는 것이니까요.

Jim Rogers(Rogers Holdings CEO)

❍ 세계적 상품투자가인 그는 지금까지 부채를 지며 세계소비의 대부분을 담당해 온 미국에서 채권국인 아시아로 경제중심이 이동(shifts)할 것이라는 견해를 강하게 제시

· 이것이 저와 제 가족이 아시아(홍콩)로 이사를 온 이유입니다(웃음)

Stephen Roach(Morgan Stanley Asia 대표, 「Next Asia」의 저자)

❍ 그는 향후 경기회복에 대해 V 字형은 아닐 것이며 완만한 회복세 가운데 긴장감이 돌 것으로 봄. 또한 심각한 Risk 및 부채 미해결 잔존의 문제가 가세되어 향후 수요충격이 다시 오면, 경기가 재위축되는 더블딥 발생 우려

❍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'고무줄이론(침체가 깊을수록 회복도 빠름)'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 금번 금융위기에는 이러한 일반이론이 적용 안될 만큼 회복이 어려울 듯(4가지 근거 제시).

· IMF가 3.4조$의 금융자산을 상각하는 등 대부분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 너무 큼

· 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너무 광범위함(too comprehensive) : 전 세계의 75%가 최저점에 있음

· 12년간 Bubble자산에 의존한 지나친 소비가 종결되고 글로벌 수요는 향후 몇 년간 고전할 전망 : 美 소비의 급격한 하락을 어느 나라도 대체하기 불가능할 전망

· 글로벌 공급을 중국이 주도하며 불균형이 지속되어 왔는데, 향후에도 공급만 관리하면 미국의 소비위축과 함께 세계경기의 회복과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

IMF 대표(이스탄불 회의결과)

❍ 향후 매우 느린 성장(slow growth)과 극심한 부채가 문제되어 통화정책은 한계에 이르고 재정정책이 중요해질 전망(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2010년까지 지속될 것)

P. Krugman(Princeton대 교수), 전문가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들

❍ Keynes의 에세이 「The Great Slump of 1930」을 인용, 새로운 위기란 없으며 모든 위기는 이전에도 존재. 현재 경기는 회복 중이나 재하강의 리스크 역시 존재함

❍ "위기극복을 위해 정부는 왜 부채를 사용하는가?"(Rogers와 Taleb)

· 어쨌거나 Counter-cyclical(경기 역행적) 경기부양책의 역할은 필요합니다. 즉 경기부양(재정정책)을 하지 않는 것 역시 현재로서 좋은 대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

·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저축의 역설(Paradox of Shrift, 단기적으로 저축의 증가가 소득과 소비 감소로 귀결)이 발생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저축의 모순 시정을 위해 정부에게는 투자활성화의 의무가 존재합니다.

❍ "현재의 수요위축 가운데, 유동성 투입이 지속된다면, 원래의 금융위기라는 문제를 유발한 상황으로 회귀, 즉 자산거품발생의 악순환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. 즉, 현재 늘어나고 있는 유동성이 Bubble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.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?"(Stephen Roach)

· Taleb 교수의 말대로 Risk Model과 Buffer가 필요하다. 금리인하 후 유동성이 거품으로 전환된다면, 이는 연준의 정책보다는 금융계가 본래 안고 있던 문제라고 볼 수 있다.

❍ 통화정책의 시행으로 각국의 통화절상이 경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,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?

· 내수만이 해답이다. 슈타인의 법칙(Herbert Stein's law, "Trends that can't continue, won't.")이란 것이 있다. 즉, 어떠한 추세(예를 들어, 국제수지 적자)가 영원히 갈 수 없다면, 그것을 멈추기 위한 조치. 더군다나 즉각적인 조치는 불필요하다(그것은 저절로 멈추게 될 것이다).

· 이와 마찬가지로 美제조업의 무역균형이 필요하다. 좀 더 구체적으로 환율조정(달러화 약세)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.

내용문의 : 금융경제팀 임혜진 연구위원(02-729-6616)

Ⅰ. 해외경제

세계경제는 완연한 회복단계에 진입했으나,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딜 전망

■ 작년 3분기부터 위축세를 보인 세계경제는 금년 2분기 이후 주요지표가 개선되며 회복세 진입(Global Insight 세계경제전망회의, '09.10)

❍ 3분기 美 GDP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, 中 성장률도 전분기보다 1%p 늘어나며 회복속도 가속화

· 美(QoQ연율, %) : -0.7('09.2Q)→3.5('09.3Q), 中(YoY, %) : 7.9('09.2Q)→8.9('09.3Q)

❍ 9월 OECD경기선행지수는 100을 상회하며 회복(recovery)단계 진입, 일부 주요 국가들은 경기확장(expansion)국면 지속

· OECD전체 : 99.3('09.8월)→100.6('09.9월), 유로지역 : 101.3('09.8월)→102.7('09.9월)

■ 그러나 주요국의 높은 실업률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, 자산가격 버블 우려는 상당기간 경기회복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(We are a long way from normal, 美 정치가 Bill McBride & San Diego大 교수 James Hamilton)

❍ 10월 美실업률은 10%대로 상승(26년래 최고치 기록), 9월 소매판매 하락세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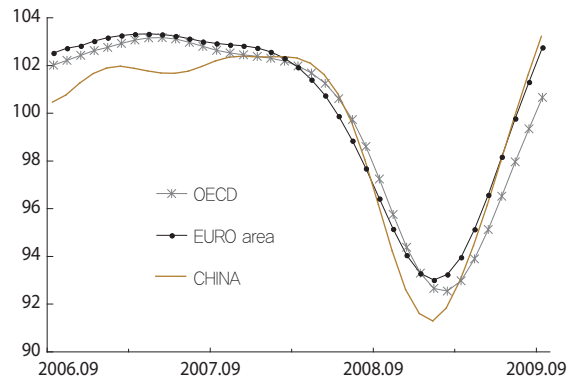
· 美 실업률(%) : 9.8(9월)→10.2(10월), 소매판매(전월비 %) : 2.2(8월)→△1.5(9월)

· P. Krugman은 美 경제를 1982년(쌍둥이 불황) 당시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에 비유

❍ 주요국의 자산가격 버블우려도 진행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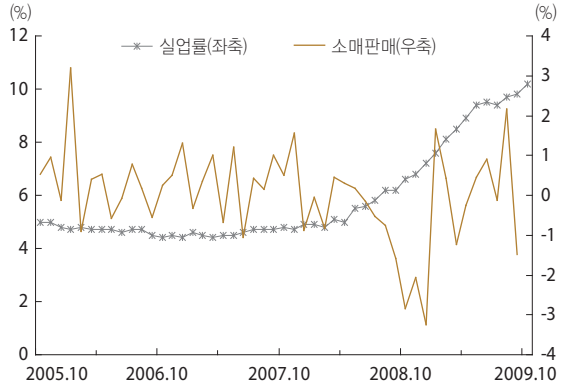
· 中 9월 70개 도시 주택가격이 7개월 연속 상승하고, 9월 대출과 총통화는 전년동기비 각각 34.2%와 29.3% 증가하여 사상최고치 기록

주요국의 OECD경기선행지수



자료 : OECD

美 실업률과 소매판매



자료 : 美 노동부, 상무부

Ⅱ. 국내경제

호전되고 있는 실물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재하강 우려 여전

■ 대부분의 지표(생산, 소비, 투자 등)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, 민간부문의 자생력에 의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

❍ 9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.0% 증가하여 '08.1월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였고, 소비재 판매는 5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, 설비투자도 '08.9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

❍ 그러나 이러한 회복세는 정부의 신차구입 시 세제지원 효과가 생산과 소비 모두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민간의 자생력이 아닌 정책효과에 의존한 불완전한 회복

·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2.3%나 증가해 전체 생산 증가율(11.0%) 중 2.85%p 기여

· 자동차 판매 또한 전년동월대비 무려 65.8%나 증가해 사상 최대치 기록

· 승용차, 트럭 등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도 사상 최대치인 55.5%(전년동월대비) 증가

■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, 여전히 민간 자생력은 매우 미약해 향후 경기가 다시 둔화될 우려 상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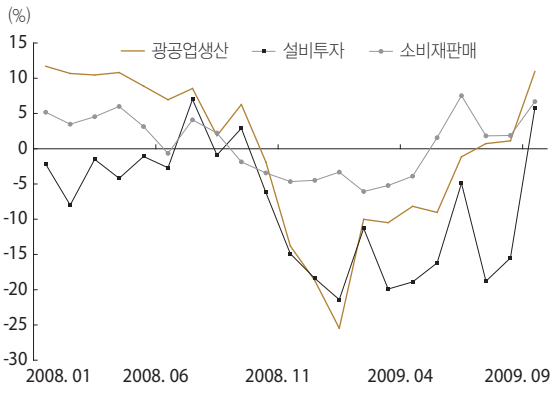
❍ 10월 공공부문의 근로자 수는 33만명 이상 대폭 증가한 반면, 민간부문은 제조업(-8.7만명), 음식숙박업(-14.9만명), 건설업(-14.7만명) 등 32만명 이상 감소하여 고용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

· 구직단념자는 전년동월대비 24% 증가한 15.4만명으로 '08.9월 이후 지속 증가

❍ 환율하락으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전망과 6월 이후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고 있는 경기선행지수, 시중자금 단기부동화 현상의 지속 등도 경기둔화 우려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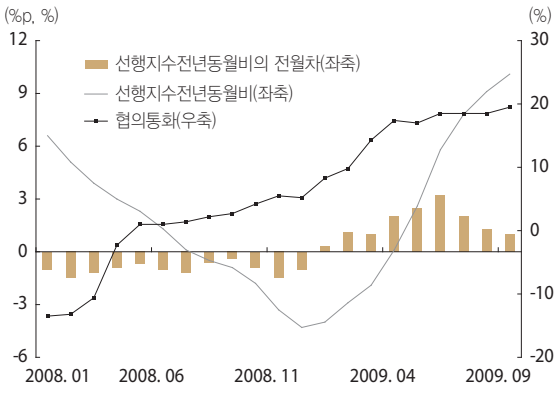
· 9월 협의통화(M1)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19.5%로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

산업활동 주요지표 증가율 추이



주 : 전년동기대비 증가율
자료 : 통계청

경기선행지수와 협의통화 증가율



주 : 협의통화 증가율은 평잔 기준 전년동기대비
자료 : 통계청

Ⅲ. 중소기업

중소제조업 경기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으나, 우려감도 일부 존재

■ 9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월대비 7.3% 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8.7% 증가(11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)했으나, 경기 개선에 대해 몇 가지 우려할 사항은 존재

❍ 전월대비 증가율은 목재 및 나무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큰 폭의 증가세 기록

❍ 민간회복세가 감지되고 있으나 정부 재정지출에 따른 효과도 크다는 점(4분기 예산 중 13조 6천억원이 조기집행)과 9월 생산이 기저효과*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은 우려할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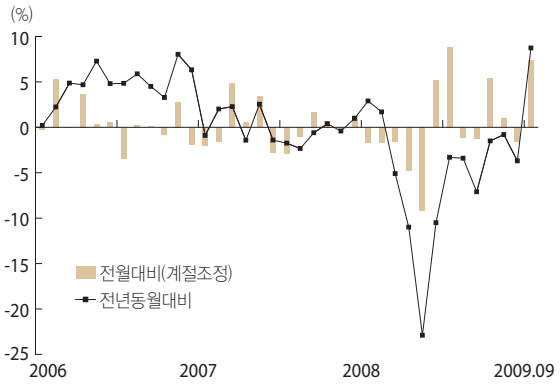
* 8월 생산은 일부 업종의 평상시 보다 긴 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축

■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소폭 악화된 반면, 가동률은 큰 폭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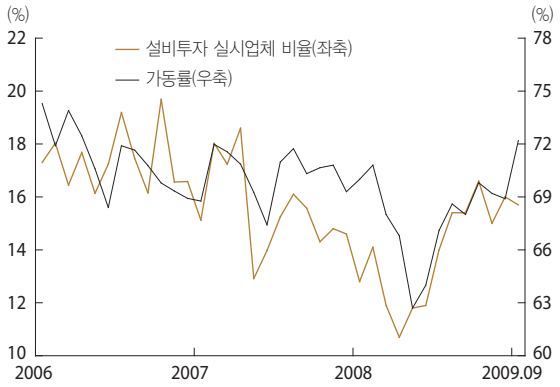
❍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은 전월대비 0.3%p 하락한 15.7%를 기록

❍ 평균가동률은 전월대비 3.3%p 상승한 72.2%로 조사

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 추이



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및 가동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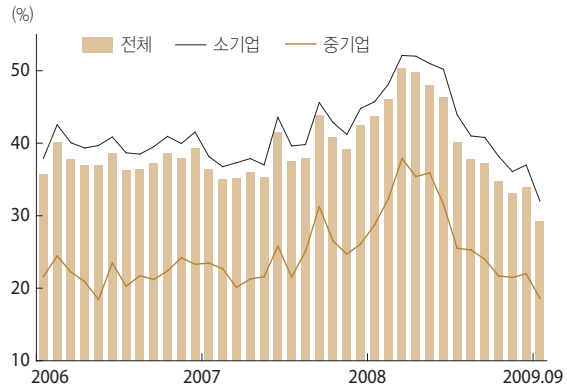
자료 : 기은경제연구소

■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정부의 재정정책 지속 등에 힘입어 중소제조업의 자금사정은 개선추이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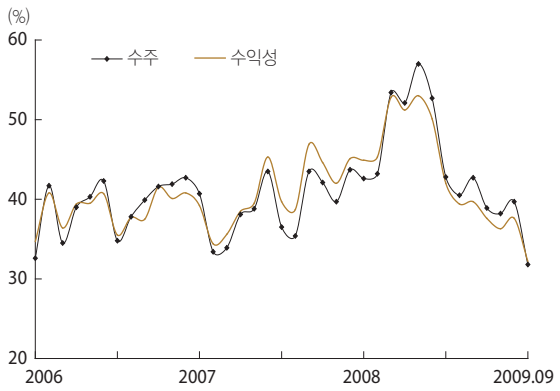
❍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율이 29.3%로 하락하면서 통계작성('04.9월) 이후 최저치를 기록

❍ 신규 수주와 수익성이 '09.1월부터 개선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주와 수익성의 큰 폭 개선이 9월 자금사정 개선의 주 원인으로 추정

중소제조업 자금사정 악화업체비율 추이



수주 및 수익성 악화업체비율 추이



자료 : 기은경제연구소

4월 이래 큰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던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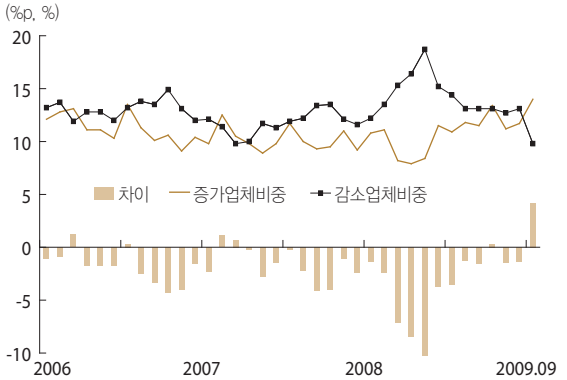
❍ 종사자수 증가 업체비율(11.7% → 14.0%)이 큰 폭 증가했으며 종사자수 감소 업체비율(13.1% → 9.8%)도 큰 폭 감소

출하 급증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고수준을 나타내는 재고율(재고/출하)은 전월대비 크게 감소(113.4% → 96.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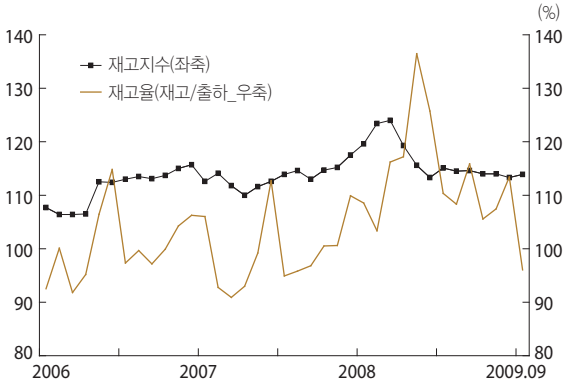
❍ 재고지수가 소폭 증가(113.3 → 113.9)하였으나, 출하가 크게 증가(99.9 → 118.6)하여 재고율은 전월대비 크게 감소

❍ 중소기업 출하는 지난해 9월부터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1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

중소제조업 고용 추이



중소기업 재고율 추이



자료 : 기은경제연구소

자료 : 통계청

Ⅳ. 금융시장

원/달러 환율은 하락압력이 우세한 가운데, 변동성은 축소될 전망

■ 11월 금통위 기준금리동결로 연내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나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국고채 금리(3yr)는 소폭 상승할 전망

❍ 시중금리는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금통위 경계감과 주식시장 반등 등으로 소폭 상승세 유지

❍ 11월 금통위 결과 기준금리는 2.0%로 9개월째 동결되었으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세계 경기 불확실성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짐

❍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소폭 상승하여 4.3% ~ 4.5%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전망

■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 유지로 인한 달러화 약세 지속 전망으로 원/달러 환율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, 4/4분기 국내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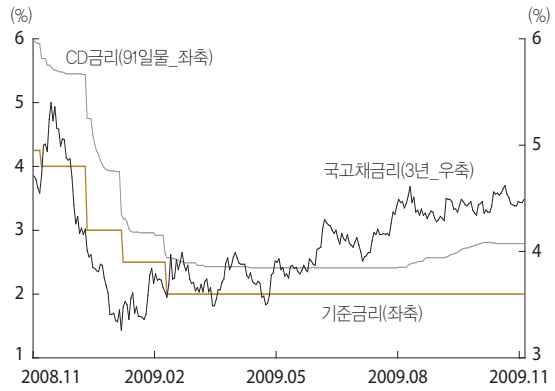
❍ 국내 외은지점 외화유동성 규제 검토 등으로 한때 반등했던 원/달러 환율은 10월말 예상을 상회한 美 GDP 발표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연중 저점인 1,160원대 진입

※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연말 원/달러 환율 전망치를 일제히 1,150원 아래로 하향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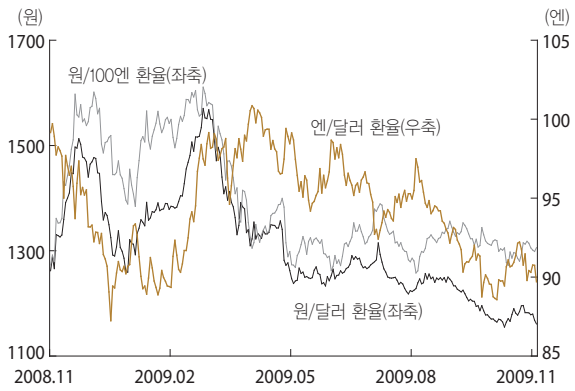
❍ 美 FRB의 출구전략 지연으로 인한 글로벌 달러 약세 및 달러 캐리 트레이드 지속 전망으로 원/달러 환율 하락압력이 높은 편이나, 대기업의 4/4분기 실적 악화 전망 및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 약화 등으로 인한 국내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

❍ 엔/달러 환율 또한 최근 일본 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장기화 전망 및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우려, 정부의 개입 가능성 등으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

금리 추이



환율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Ⅴ. 자금흐름

MMF와 주식형펀드의 유출 지속으로 자산운용사 수신은 6개월 연속 감소

■ 은행 수신은 정기예금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로 전환되었고, MMF의 자금 인출 지속으로 자산운용사 수신은 감소세 지속

○ 은행 수신은 정책금융공사(KoFC) 설립에 따른 산금채 이관분(16.5조원) 감안 시 실제로는 9.8조원 증가

▮ 주요 금융기관 수신 추이 ▮

(기간중 말잔 증감, 조원)

	2007		2008		2009			'09.10월말 잔 액
	연중	10월	연중	10월	8월	9월	10월	
은행 수신	59.6	8.4	104.3	22.7	13.5	16.5	-6.8(9.8)[3]	1,014.3
(수시입출식[1])	-6.6	1.7	11.8	2.9	9.5	6.3	-5.9	277.3
(정기예금)	11.9	0.8	63.0	19.5	4.1	9.2	13.2	374.7
(CD)	28.8	2.8	8.2	1.0	0.3	-0.9	3.1	114.8
(은행채)	34.0	3.5	31.2	0.7	-1.2	2.7	-16.3(0.2)	178.9
자산운용사 수신	61.8	13.0	63.0	2.4	-7.8	-18.3	-7.3	338.5
MMF	-10.4	1.7	42.2	12.3	-6.5	-16.0	-6.2	72.8
주식형	69.9	10.6	23.9	-3.4	-2.8	-3.0	-1.2	129.9
채권형	-9.6	-1.3	-10.5	-2.7	1.8	1.2	0.8	45.7
혼합형	-3.3	3.5	-5.4	-2.7	-0.7	-0.2	0.0	32.8
신종펀드[2]	15.3	-1.5	12.9	-1.1	0.3	-0.3	-0.8	57.3
증권사 CMA	18.5	0.5	3.5	-3.4	-0.3	-0.9	0.2	39.1

주 : 1) 요구불예금 포함 2) 파생상품펀드 등 간접투자펀드 운용액 포함 3) ( )내는 산금채 이관분 제외시
자료 : 한국은행(금융시장동향), 금융투자협회

■ 중소기업의 추석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기업대출은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, 은행들의 대출자산 유동화 감소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하면서 가계대출은 증가로 전환

○ 유동화분을 포함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전월(2.4조원)에 이어 증가규모 축소(2.0조원)

▮ 기업자금 및 가계대출 동향 ▮

(기간중 말잔 증감, 조원)

	2007		2008		2009			'09.10월말 잔 액
	연중	10월	연중	10월	8월	9월	10월	
기업대출[1]	79.3	9.2	78.3	8.9	3.0	2.9	2.1	515.6
(대 기 업)	12.5	0.8	30.3	6.0	-0.0	0.2	-0.2	79.5
(중소기업)	66.8	8.4	48.0	2.9	3.0	2.8	2.2	436.0
기업직접조달[2]	12.5	5.5	26.6	4.8	0.1	1.2	2.4	-
가계대출[3]	17.8	3.9	25.0	1.4	3.0	-1.0	1.4	405.6
(주택담보대출)	4.6	1.1	18.1	1.0	2.8	-0.4	1.4	261.6
(마이너스통장대출 등)	13.0	2.8	6.8	0.4	0.2	-0.5	0.0	142.8

주 : 1) 원화대출(은행신탁 포함, 산업은행 포함) 2) 직접조달 = CP순발행 + 회사채 순발행 + 주식발행 3) 신탁포함,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
자료 : 한국은행(금융시장동향)

Ⅰ. IBK 녹색성장지원단

녹색성장을 선도할 "IBK 녹색성장지원단" 출범

■ 기업은행(IBK)은 녹색성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저탄소 녹색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녹색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"녹색성장지원단"을 신설

○ 녹색성장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해 대응전략과 지원방안을 제시하고,

○ 녹색기업 지원 녹색금융상품 개발, 녹색컨설팅 등을 선도하는 업무를 담당

녹색성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IBK 녹색금융

■ 녹색산업에 2009년 중 1조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"녹색성장기업대출"을 출시

○ 녹색성장기업대출은 태양광,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, LED, 그린카 등 녹색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지원 녹색금융상품으로,

○ 지점장의 전결권 및 대출한도, 금리 감면권을 대폭 확대해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

· 특히, 담보가 부족한 기업을 위해 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액보증서(보증비율 100%)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보증료도 0.2%p 이상 감면

○ 또한 '친환경금융'을 실천하기 위해 대출금액 1만원당 1포인트를 적립하여 최고 1억원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에 기부할 예정

○ '10년 "녹색인증제" 시행에 따라 녹색인증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

녹색성장기업대출 지원대상

신재생에너지	태양광(태양전지), 풍력, 바이오에너지, 연료전지, 해양에너지, 폐자원에너지
탄소저감에너지	이산화탄소 포집 · 저장(CCS), 원전플랜트
첨단수자원	스마트상수도, 친환경대체용수, 지속가능 물환경 관리
LED	LED소자/장비, LED스마트모듈, LED조명/Application
그린수송시스템	그린카
New IT	차세대디스플레이, 시스템반도체, 차세대무선통신, RFID/USN
융합신산업	로봇, 신소재나노융합

녹색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"기업 특별 설비투자펀드" 3,000억원 운영

❍ "기업 특별 설비투자펀드"는 녹색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산업 설비투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

❍ 또한, 녹색산업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 형태에 따라 "녹색설비브릿지론", "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" 등 맞춤형 녹색금융상품을 출시하여 판매

· 녹색설비브릿지론 : 대기업의 녹색설비 납품계약 중소기업의 원자재구매자금 지원

·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 :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의 금융으로,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결제대금으로 대출금을 자동상환하는 대출상품

❍ 앞으로도 기업은행은 녹색설비 투자확대를 통한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자금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투자대상기업을 발굴할 계획

친환경금융과 녹색경영

녹색성장 대출재원 마련과 환경단체 후원을 위한 "녹색성장예금"을 판매

❍ 녹색성장예금은 가입 시 최고 0.2%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가입금액의 0.1%를 은행부담으로 녹색성장산업 지원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공익상품으로,

❍ 출시 5개월 만에 1조원을 돌파

친환경소재 카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카드상품 출시

❍ 폐기되면 흙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기프트카드를 출시하였으며,

❍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요금을 연간 최대 24,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"상쾌한 공기 로하스카드"를 개발하여 판매

에너지 절감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

❍ 본점 전 부서와 지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방식으로 보상하는 "에너지 마일리지제"를 시행하고 있으며,

❍ 물자절약을 위해 "알뜰살뜰 365일 근검절약운동"을 전개

○ 본점 건물 계단을 음이온 발생장치와 자연조명을 갖춘 "에코헬스웨이" 건강계단으로 설치하는 등 녹색근무환경을 조성

○ '11년 완공예정인 기업은행의 연수원은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"그린연수원"으로 건립예정

IBK 녹색성장 향후 추진계획

2010년부터는 기업은행의 주요고객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녹색시장 진입과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"녹색컨설팅"사업에 주력

○ 에너지 과소비기업에 대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서비스와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시하고,

○ 녹색산업 신규진입 기업에 대하여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성장전략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

녹색경영의 지속추진

○ '10년에도 에너지비용과 소모품비를 전년 대비 10% 이상 감축할 계획

○ 은행 자체배출 온실가스를 절감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, 체계적인 감축활동을 해나갈 예정

내용문의 : 녹색성장지원단 녹색경영지원팀 성경완 과장(02-729-6948)

Ⅱ. 중소기업 컨설팅 사례

Problem 매출은 2배가 되었는데 현금은 넉넉지 않고...

❍ B사는 안정적인 공기업 매출처를 확보하여 최근 2년간 매출이 2배로 급성장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임

❍ 하지만, 실제 현금흐름은 그다지 여유롭지 않았으며 매출규모에 비해 회사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느낌만 있을 뿐 명확한 문제파악이 안됨

What to do? 급격한 매출에 비해 경영관리가 미흡한 상황

❍ 조직이 지나치게 생산위주로만 세팅이 되어있어 매출규모가 커짐에 따라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증가

❍ 세무사와 매출 및 수익수준에 대해서만 상의하여 재무제표를 일임하고 내부관리체계가 없어 무엇이 어떻게 회계처리 되는지 CEO가 모르는 상황

❍ 이에 따라 세무조정 및 회계처리 누락으로 손금인정도 못 받고, 은행거래상 필요한 신용평점관리가 되지 않아 향후 금융비용의 증가가 예상됨

Solution 매출규모에 걸맞는 경영관리체계를 설계하여 제시함

❍ 업무프로세스별로 필요한 내부관리방안을 제시함

❍ 재무진단을 통해 실제현황을 반영한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현 경영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함

❍ CEO는 막연하게 느끼던 문제점에 객관적 데이터가 제시된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에 만족하고 이를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함

Review 컨설팅을 활용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필요

❍ 기업도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영양분이 있으며 적시에 이를 공급하지 못하면 불균형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

❍ 중소기업 인력 형편상 외부 컨설팅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장기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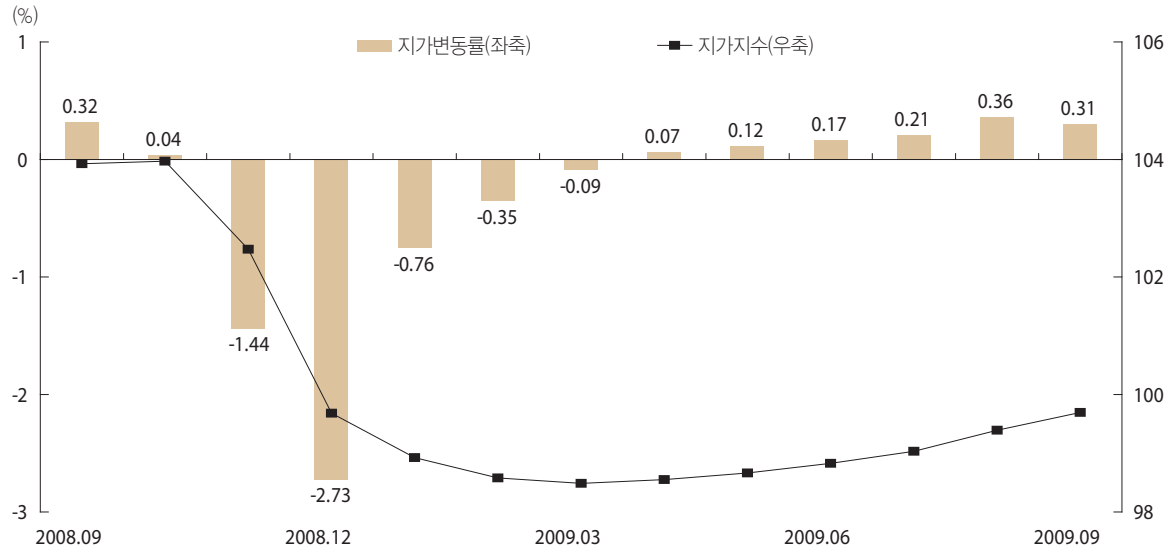
내용문의 : 기은컨설팅센터 유휘동 과장(02-6322-5178)

Ⅲ. 부동산 시장동향 및 이슈

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가는 2010년에도 상승이 지속될 전망

■ 토지시장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땅값이 '08.11월부터 '09.3월까지 5.3%하락하는 등 급격한 침체국면을 보였으나, '09.4월부터 완만한 회복세 지속

월별 지가변동률 및 지가지수



주 : 2008. 1. 1 = 100

■ 그러나, '09년 9월까지의 누적상승률은 0.01%로, 현재 지가는 지난해 10월 고점에 비해서는 4.1% 낮은 수준

'09년 지가변동률 및 누적상승률

(단위 : %)

구분	전국	수도권	서울	인천	경기	지방
9월 지가변동률	0.31	0.41	0.39	0.43	0.43	0.12
'09.1~9월 누적상승률	0.01	0.24	0.58	0.28	-0.14	-0.40
고점대비	-4.11	-5.00	-5.80	-3.86	-4.57	-2.43

자료 : 국토해양부(2009.10)

■ '09년 누적지가상승률이 (+)로 전환됨에 따라 '10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, 그에 따라 부동산의 사전증여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

대규모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「2차 보금자리주택지구」 발표

■ 주택시장 안정 및 민간시장 위축 보완, 내집마련 기회확대를 위해 '12년까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40만호에서 60만호까지 확대공급하기로 결정

❍ '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내 32만호의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 시범지구에 이어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(8,897천㎡)을 추가로 선정

❍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'09.12월까지 지구지정을 확정하고 '10년 상반기 중 사전예약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며, '13년 상반기 중 입주 예정

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현황

(단위 : 천㎡, 천호)

지구명	합계	서울내곡	서울세곡2	부천옥길	시흥 은계	구리갈매	남양주진건
면적	8,897	769	770	1,330	2,031	1,506	2,491
주택호수 (보금자리주택)	55 (39)	5 (4)	5 (4)	8 (5)	12 (9)	9 (6)	16 (11)

주 : 주택호수는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예상분양가(3.3㎡당)

구 분	예상 분양가	주변 비교대상	주변시세 대비
강남세곡	1,150만원 수준	2,250만원(수서)	50% 수준
강남내곡		2,117만원(우면, 방배)	
구리갈매	850만원	1,200만원(별내)	70% 수준
남양주진건	700만원	1,000만원(도농, 인창)	
부천옥길	700만원	1,000만원(범박)	
시흥은계	650만원	818만원(은행)	

주 : 상기 예상분양가격은 변동될 수 있음

내용문의 : PB고객부 PB영업팀 김일수 부동산전문위원(02-729-7189)

경제지표

		2007년	2008년	2009년		2009년		
				1/4분기	2/4분기	7월	8월	9월
성장	GDP(%)	5.1	2.2	-4.2	-2.2	0.6(3/4분기)		
	(전기대비)			0.1	2.6	2.9(속보치)		
경기	동행지수순환변동치	101.1	100.0	92.3	94.2	96.2	96.7	96.8
	선행지수전년동월비(%)	6.9	0.9	-3.5	2.9	7.8	9.0	10.1
산업활동	광공업생산(%)	6.8	3.0	-15.5	-6.2	0.9	1.2	11.0
	생산자제품출하(%)	7.1	2.4	-14.7	-5.8	-1.2	-0.9	8.7
	생산자제품재고(%)	5.7	12.3	-5.7	-13.3	-14.7	-14.1	-14.0
	제조업가동률(%)	80.1	77.2	65.8	73.6	78.8	77.6	80.2
	제조업BSI(업황)	85	74	49	73	81	86	90(92)
소비	소비재판매(%)	5.1	1.0	-4.9	1.5	1.8	2.0	6.7
	소비자심리지수			84	103	109	114	114(117)
투자	설비투자추계(%)	8.2	-4.3	-17.5	-13.7	-18.8	-16.6	5.8
	기계수주(%)	19.8	-5.5	-36.0	-11.2	7.3	-16.8	31.9
	건설기성액(%)	6.6	4.7	4.5	6.6	-2.3	-6.8	6.0
	건설수주액(%)	19.3	-9.0	-16.5	-2.0	2.9	-29.5	58.4
고용	실업률(%)	3.2	3.2	3.8	3.8	3.7	3.7	3.4(3.2)
	취업자증가율(%)	1.2	0.6	-0.6	-0.6	-0.3	0.0	0.3(0.0)
서비스업	서비스업생산(%)	6.4	3.4	-0.1	1.6	0.9	1.1	4.2
물가	소비자물가(%)	2.5	4.7	3.9	2.8	1.6	2.2	2.2(2.0)
	(전월비)					0.4	0.4	0.1(-0.3)
	생산자물가(%)	1.4	8.6	4.2	-1.0	-3.8	-3.0	-2.6(-3.1)
	(전월비)					1.2	0.6	0.1(-0.8)
	전국주택매매(%)	9.0	4.1	1.6	-0.6	-1.1	-1.0	-0.5(-0.1)
	서울아파트매매(%)	16.0	5.4	0.7	-2.6	-2.1	-1.7	-0.6(0.1)
국제수지	경상수지(억달러)	58.8	-64.1	85.8	131.8	43.6	20.4	42.0
	수출증가율(%)	14.1	13.6	-24.9	-20.3	-21.9	-20.9	-7.8
	수입증가율(%)	15.3	22.0	-32.8	-36.1	-35.7	-32.6	-24.6

주 : 전년동기대비 증가율, ( )는 10월 수치

		2007년	2008년	2009년		2009년		
				1/4분기	2/4분기	7월	8월	9월
중소 제조업	산업생산(전체,%)	3.9	-1.2	-12.5	-3.9	-0.8	-3.7	8.7
	(중화학공업,%)	3.5	-1.7	-15.2	-4.8	-0.7	-4.5	9.8
	(경공업,%)	4.6	0.0	-5.9	-1.8	-0.9	-1.8	6.2
	설비가동률(전체,%)	70.4	69.7	64.6	68.8	69.2	68.9	72.2
	(소기업,%)	69.4	69.1	63.3	67.4	67.4	67.4	73.0
	(영세기업,%)	65.1	64.1	58.6	62.4	62.3	62.8	65.7
	(중기업,%)	77.0	75.5	69.8	74.4	76.2	74.5	77.8
	설비투자실시업체(전체,%)	17.3	13.9	12.6	15.8	15.0	16.0	15.7
	(소기업,%)	15.1	11.8	9.5	12.7	11.9	12.1	11.2
	(영세기업,%)	10.1	7.5	6.2	8.5	8.1	7.7	5.2
	(중기업,%)	33.1	28.8	24.9	29.0	28.2	32.6	33.7
	자금사정악화업체(전체,%)	37.0	42.4	44.8	36.6	33.1	33.9	29.3
	(소기업,%)	39.1	44.4	48.4	40.0	36.1	37.0	32.0
	(영세기업,%)	45.1	48.5	50.0	42.6	36.5	38.9	34.2
	(중기업,%)	21.9	28.1	31.0	23.7	21.5	22.0	18.6
	중소제조업고용(증가,%)	10.8	9.8	10.3	12.2	11.2	11.7	14.0
	(감소,%)	12.4	12.9	16.1	13.1	12.7	13.1	9.8
	(증감차,%p)	-1.6	-3.1	-5.8	-0.9	-1.5	-1.4	4.2
	BSI 실적(기준=100)	84	71	56	87	91(3/4분기)		
	전망(기준=100)	106	98	59	90	114(4/4분기)		
	어음부도율(%)	0.02	0.03	0.04	0.03	0.02	0.02	0.02
	신설법인(월평균, 개)	4,505	4,238	4,152	4,820	5,501	4,567	5,193
	부도법인(월평균, 개)	126	157	158	113	86	78	102

주 :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

		2007년	2008년	2009년		2009년		
				2/4분기	3/4분기	8월	9월	10월
자금시장*	총수신(은행)	5.0	8.7	8.5	9.8	13.5	16.5	-6.8
	(자산운용사)	5.1	5.3	-3.8	-9.4	-7.8	-18.3	-7.3
	가계대출	1.5	2.1	2.6	1.6	3.0	-1.0	1.4
	(주택담보대출)	0.4	1.5	2.4	1.9	2.8	-0.4	1.4
	기업대출	6.6	6.5	0.9	2.8	3.0	2.9	2.1
	(대기업)	1.0	2.5	-1.5	0.7	-0.0	0.2	-0.2
	(중소기업)	5.6	4.0	2.4	2.1	3.0	2.8	2.2
금리	콜금리(%)	4.77	4.78	1.88	1.97	1.98	1.99	1.99
	국고채3년(%)	5.24	5.27	3.89	4.30	4.42	4.40	4.47
	회사채3년(AA-, %)	5.70	7.02	5.35	5.59	5.74	5.58	5.60
환율	원/달러(₩)	929	1,103	1,289	1,241	1,238	1,219	1,175
	엔/달러(¥)	117.8	103.3	97.4	93.6	95.0	91.5	90.4
	원/100엔(₩)	789	1,077	1,323	1,325	1,304	1,332	1,301
	달러/유로($)	1.371	1.471	1.362	1.429	1.426	1.456	1.483
국제금리	미국국채10년(%)	4.63	3.64	3.30	3.50	3.58	3.39	3.36
	일본국채10년(%)	1.67	1.49	1.44	1.34	1.37	1.32	1.32
유가	WTI($/bbl)	72.4	99.8	59.8	68.2	71.1	69.5	75.8
	Brent($/bbl)	72.7	98.3	59.9	68.9	73.1	68.2	73.9
	Dubai($/bbl)	68.2	94.3	59.3	67.9	71.4	67.7	73.2
원자재	금($/온스)	696	872	922	960	949	997	1,043
	전기동($/톤)	7,096	6,884	4,690	5,848	6,172	6,210	6,311
	알루미늄($/톤)	2,662	2,620	1,524	1,837	1,965	1,867	1,915

주 : 기간중 평균

*단위 : 조원, 기간중 말잔 기준 증감액, 연간·분기 자료는 기간중 월평균 증감액